2026.10.11.	연중 제 28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28번>	<폴더 41번>	<폴더 20번>	<폴더 45번>
주는 우리의 기쁨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받으옵소서	태양의 찬가

제 1독서 | 이사야서 25,6-10

화답송 |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 필리피서 4,12-14.19-2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2,1-14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엄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6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7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8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9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10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13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9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1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8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느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이미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총을 소중히 지키지 않는다면, 혼인 예복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복은 상징적으로 두 개의 나무 베틀에서 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Homiliae in Evangelia, 38,9 (PL 76, 1287).

올바른 성모 신심을 찾아서 ②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모신심 - Fr.양경모 대건안드레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문인 3세기의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Sub Tuum Praesidium, 《가톨릭 기도서》에는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수록)를 봅시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박해의 위기 속에서 쓰인 이 기도문은 "나를 구하소서."가 아니라, "저희를 맡기오니…… 저희의 기도를…… 저희를 구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초기 교회의 성모 신심

초기 교회 신자들은 성모님을 개인의 소원을 비는 사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 곧 '교회 공동체' 전체로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지니신 보호의 망토 아래로 피신했습니다. 성모님을 향한 공경은 결코 그분을 교회 공동체에서 떼어 놓거나 개인주의적인 신심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초기의 성모 신심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합니다. 성모님은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곤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 전구하시면서도, 언제나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하시며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하시며 성모님께 '교회의 어머니'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로 선포한 것 역시, 단순히 마리아를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참하느님'이심을 수호하기 위한 표현, 곧 '그리스도론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교회의 교부들 역시 마리아를 하와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새 하와'요, '교회의 전형이자 모범'으로 칭송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공경했을 뿐, 결코 어떤 여신처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초기 교회의 성모 신심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을 향한 뜨거운 신심

이후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조금씩 깊어졌고, 성모님에 대한 칭송과 표현 역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와 문화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성모님을 강조해 왔지만,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과 여러 차례의 전쟁 등 가혹한 현실 속에서 성모님을 향한 뜨거운 신심과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사이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보다 심판을 향한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하고 무서운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와 그 진노를 달래 주시는 '자비로운 어머니 마리아'라는 대조적인 이미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성모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하느님의 심판과 분노를 막아 주신다는 생각이 대중들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종교 개혁과 바로크 시대를 지나며 절정에 이릅니다. 종교 개혁 시기에 마리아의 지위를 축소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가톨릭 교회는 이에 맞서는 호교론적 방어 기제로 성모님의 특권과 능력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였고, 그 결과 성모 신심은 점차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분리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주님의 기도만 바치고 성모송이나 묵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단의 징조"라는 극단적인 말이 돌 정도로, 성모님께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지나친 공경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자리마저 위협하던 시기를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아 성모님을 성경과 전례 안의 '올바른 자리'로 다시 모시기 위해 치열하게 성찰하며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3화에서는 공의회가 어떻게 마리아론의 궤도를 바로잡고 성모 신심의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었는지, 그 위대한 쇄신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공지 사항

* St Brigid's Dickson & St Patrick's Braddon에서 사목하시던 **Sebastian Luistro** 신부님께서 지난 10월 8일(목)에 선종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미사 후 식사 나눔

오늘 미사 후 교육관에서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간식 나눔은 10월 25일에 있습니다.

2. <여정 시즌 9> 성경 나눔 온라인 모임 안내

- 10월 27일(화), 저녁 7시

<다음 모임을 위하여 아래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갈라티아서 전체

3. 세례를 앞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신자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인숙, 신미란, 차진아, 이효령, 신정인
허린, 오성배, 양현희, 유아인, 서정환



'그 힘 받고 해보겠습니다!' 박경희(유스티나) 作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10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안윤경 소화데레사 (10.01) - 박가연 소화데레사 (10.01)
- 김인국 프란치스코 (10.04) - 조휘원 프란치스코 (10.04)
- 남궁윤하 유스티나 (10.07) - 박주현 타대오 (10.28)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 전체에 정신 건강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자리 잡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인과 차별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봉헌금 & 교무금 | (10월 3일 ~ 10월 9일)

봉헌금	$ 395			
교무금	$ 41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정수민	정은영	주정자	황병욱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10월 공동체 실천 |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하나 생각하기
그리고 주모경 바치기